

## 세 친구 이야기 ..... 탈무드

어떤 사람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겼고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기는 하였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임금에게서  
궁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무슨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진 그는  
세 명의 친구에게 임금 앞에 함께 가 달라고  
차례로 부탁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긴 첫 번째 친구는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친구는  
궁전 문 앞까지는 함께 가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였는데  
그는 흔쾌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기꺼이 함께 가겠네.  
자네는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께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드려 주지.”

임금의 부름은

죽은 뒤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입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모으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그들은 무덤까지 따라와 주지만,

죽은 이가 무덤에 묻히고 나면

그를 혼자 남겨 두고 돌아갑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그의 선행은 그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세 친구 이야기로,

하느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마지막 순간에도 집과 들에 남겨진

재산에 마음을 쓰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동행할 친구는

돈이나 재산이 아닌

오직 사랑의 실천뿐입니다.